

발행인 장영수 공공의료본부장  
편집인 지승준 홍보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아펜1로 20  
전화 (02)6300-7530~2

# 서남동행N

VOL.12 2023. 12

## 서울 서남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원외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본부장 장영수)는 지난 11월 29일(수), 지하 2층 세미 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책임의료기관 원외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시민,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양천구 보건소 김요한 의약과장, 양천구청장협의회 이은광 회장, 강서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전석균 교수, 양천해누리복지관 김경환 관장,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이재근 관장 등이 참여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 인사말 ▲하반기 신규 위촉 위원 소개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보고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석균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협력체계 구축 사업 시작 이후 단기간 내 다양한 사업이 전개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영수 공공의료본부장은 “지역 내 시민,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었다”며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서남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 성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표창해)은 지난 11월 24일(금), 서울 서남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관간 사업현황 공유와 효율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표창해 서남병원장을 비롯해 장영수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장, 임재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공공부원장,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의료정책실장, 김순덕 양천구청 주민복지국장 등 유관 기관 대표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이 참석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 구축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순덕 위원(양천구청 주민복지국장)은 “지난 양천구청 돌봄SOS 우수사례 공유회에서 서남병원의 퇴원연계서비스 사례가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돌봄제도의 공백을 메꾸어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간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창해 병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회의에서 전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 서남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겨울철 한파 안전 대응 방문서비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밖으로 나가면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인데요. 쌀쌀한 날씨와 함께 겨울은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병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 대책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의료사업실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남권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겨울철 한파 재난 안전 대응 방문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방문 대상은 고령이거나, 혼자 거주하는 분들,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등 한파에 취약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겨울철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없는지 도와드리고자 오늘도 분주히 발걸음을 옮겨,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양철 대문을 열고 오늘도 활기차게 불러봅니다.



“○○○ 님, 서남병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공공의료사업실은 감염병 질환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위해 방한용품과 건강관리 용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였는데요. 홀로 거주하고 있는 김칠례(가명) 할머니는 “요즘 가을 때 가장 힘든 게 춥고 외로운 거다”라며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방문한 공공의료사업실 직원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추위로 긴 겨울을 보낼 분들에게 저희의 작은 실천이 모여 따뜻한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며, 공공의료사업실은 서남권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